

며칠 간격으로 계속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다.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며 언론에서는 호들갑을 떨지만 연말 기분은 전혀 나지 않는다. 유난히 고달팠던 2023년이 어서 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마저 든다. 마스크를 벗은 일상으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지만 그사이 너무 많이 달라진 세상과 마주해야 했고 달라진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피로감에 2023년이 더욱 버거웠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뜨거웠던 한국 문단과 국문학계는 코로나-팬데믹의 시기를 거치면서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 담론의 약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소설에서는 SF와 포스트휴먼의 상상력으로, 시에서는 인공지능의 시 창작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라는 주제로 어젠다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을 경험한 이후의 한국문학은 이전의 문학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성문학은 담론의 급진성으로 인해 새로운 어젠다로의 확장에 비교적 유연한 편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문학, 더 나아가 한국 여성문학의 확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페미니즘 리부트를 겪으며 한국문학에는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 간의 계급, 세대, 지역,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좀 더 섬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자와 비인간으로 포착되어 왔던 문제의식을 여성 서사가 포괄할 수 있게 되었으며 SF소설이나 웹소설, 인공지능 시와 같은 장르적 확장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이 부추긴 이러한 변화는 여성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시 묻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여성문학연구』 60호의 특집은 지난 10월 21일에 열렸던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 특집 주제 〈지금 이곳에서 여성 서사, 다시 묻기〉의 문제의식을 계승해 새롭게 구성하였다.

김경연의 「근대 ‘소녀’의 탄생과 ‘소녀성’의 창안」은 근대계몽기 이래 ‘소년 대한’을 실현하고 선도할 주체로 ‘소년(성)’을 상상해온 가부장적 기획 속에서 ‘소년’의 구성적 외부로 존재했던 ‘소녀’의 근대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소년’과 변별되는 ‘소녀’라는 젠더 표상이 구축되고 담론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여학생을 주요 독자로 호명하고 여학생과 관련한 담론을 생산한 대중잡지 『신여성』을 근대적 표상으로서의 ‘소녀(성)’를 발명한 유력한 시원적 매체로 다시 읽고자 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가부장이 가 공한 ‘소녀(성)’는 이를 의심하고 ‘다른 소녀’를 주장하는 실재하는 소녀들에 의해 이미 언제나 휘절되는 것이기도 했음을 이 논문은 포착한다. 이 불온한 소녀들의 근대, 혹은 소년의 근대가 누락하거나 폐제한 소녀들의 잊힌 근대를 복구하기 위한 시론적 탐색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은 지금 이곳의 여성 서사를 다시 묻고자 하는 특집 주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선옥의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젠더, 민족, 민중의 교차」는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을 젠더, 민족, 민중의 교차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 논문이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을 민족민중문학과와의 관련성 속에서 읽고자 했으며 당시 여성해방문학론이 논의했던 젠더, 민족, 민중의 복합성 개념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민족문학이자 여성문학으로 읽혀 온 윤정모의 『교배 1』을 대상으로 여성 민중의 재현에서 여성 주체의 복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이선옥은 이들의 시도가 광주항쟁과 운동의 열광이 끝난 후 남성 중심의 단일성 주체로 구성되어가는 민중 개념에 틈을 내고 여성 민중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족민중문학의 남성 중심성 전체를 해체할 수 있는 대안 담론으로서의 의미는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이 촉발된 자리로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을 호명하는 이 논문의 관점은 기억할 만하다.

장은정의 「1980년대 한국시의 이중구속 연구」는 김혜순과 황지우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1980년대 한국 시에 나타나는 시적 대응을 젠더 분할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김혜순과 황지우가 등단 시기나 시집 발간 시기 등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라는 시대적 범주 아래 함께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이 논문은 왜 이들이 1980년대 시사에서 ‘해체시’ 같은 동등한 범주에서

논의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들어 1980년대 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두 시인의 시가 ‘80년대적인 것’을 기반으로 동시에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러한 현상 자체를 ‘80년대적인 것’으로 호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숙고될 만한 것이다. 1980년대에 발표된 김혜순과 황지우의 시 사이에 성립하는 복합적인 관계성을 스피박의 ‘이중구속(double bind)’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1980년대 시사에 균열을 내며 새로운 사유의 자리를 열어주고 있다.

60호에는 다양한 시기와 새로운 연구 대상 및 주제를 다룬 9편의 일반 논문이 실렸다. 『계축일기』를 다룬 논문부터 임순득과 서정주의 관계에 주목한 논문, 『새조선』과 『청맥』 등의 매체에 실린 작품을 다룬 논문, 전해린의 일기, 고정희의 시, 2010년대 미국에서 출간된 여성탈북기, 2015년 위안부합의 이후 포스트기억 세대의 기억 작업, 201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의 걸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 다채로운 주제의 흥미로운 논문들이 실렸다. 김보현의 『『계축일기』의 종결 연구』, 이상경의 「임순득(任淳得)과 서정주(徐廷柱)의 관계 연구: 임순득의 소설 「달밤의 대화(月夜의語り)」와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를 중심으로」, 등천의 「선전물로서의 번역, 전쟁터로서의 여성-북한 대외홍보지 『새조선(新朝鮮)』에 게재된 여성영웅서사의 번역을 중심으로」, 김복순의 「『청맥』의 소설에 나타난 리저널리즘과 (국가)폭력의 젠더」, 이행미의 「전해린의 일기에 나타난 ‘모성’이라는 문제」, 장서란의 「고정희 시의 수평적 저항성 연구」, 이지은의 「여성탈북기의 ‘미국화’ 장치들」, 김려실의 「증언과 상상-일본군 ‘위안부’의 기억과 포스트기억 예술」, 이혜원의 「한국 걸그룹 노래에 나타나는 페미니즘 전략 분석-디지털 성범죄 대항 사례를 중심으로」 등 9편의 일반 논문들도 여성문학 연구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서 독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추천석사논문으로는 권진경의 「1960년대 여성 극작가의 가족 형상화 방식-김자림과 박현숙을 중심으로」를 소개한다. 권진경의 논문은 1960년대 여성 극작가가 발표한 희곡에 나타난 가족 형상화가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 김자림과 박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자림과 박현숙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기존 가부장제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

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지배 질서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물상으로서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가족을 근간으로 한 통치라는 196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한 여성 극작가의 연구를 확장하고자 했다. 가족은 시대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두 사람의 작품에 등장했다. 이 연구는 김자림과 박현숙의 1960년대 희곡 작품이 지닌 주제의식 내부의 균열을 확인하고, 19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지점을 가족의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작품 세계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번 호 서평으로는 산드라 길버트와 수전 구바의 『여전히 미쳐 있는-실비아 플라스에서 리베카 솔닛까지, 미국 여성 작가들과 페미니즘의 상상력』에 대한 전승민 평론가의 글 「우리는 언제 미쳤었던가?」를 실었다. 『다락방의 미친 여자들』 출간 이후 40년 만의 신작으로 알려진 이 책은 저자들이 현대로 시선을 옮겨와 195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여성들의 글쓰기를 날카롭게 분석하였다. 전승민은 영문학 연구자이자 한국문학 비평가로서의 경험과 감각으로 『여전히 미쳐 있는』을 오늘의 한국 여성문학의 상황과 접목해 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의 페미니즘 비평이 여전히 차이를 두려워하고 서로 불화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현상, 그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까지 미쳐 ‘제대로’ 미치지 못한 ‘우리’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자리로 그의 글은 향한다. 길버트와 구바의 신작 『여전히 미쳐 있는』을 현재 미국이 처한 국가적 백래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동시대성을 비판적으로 타진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책으로 적극적으로 독해하고 있는 전승민의 글을 꼭 읽어주기 바란다.

2023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곳에서 『여성문학연구』 60호에 세 편의 특집 논문과 9편의 일반 논문, 추천석사논문과 서평이라는 풍성한 읽을거리를 수록할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다. 새해라고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보여주는 지금 이곳의 여성 서사에 대한 치열한 질문과 여성문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굴에 자극과 용기를 얻는 연구자들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소장 연구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한국여성문학학회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

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새해에는 더욱 돈독하고 치열한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꿈꿔 본다.

편집위원장 이경수